

1990 2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어린이들이 서로 섬김의 자세로 놀고 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막 10:45)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빌립보서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소위 ‘마게도니아에로의 부름’을 받게 되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빌립보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하여 그 지역 복음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감옥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는 능력의 산 증인이 되었다. 특히 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교회였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예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물과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보냈는데 시중을 드는 동안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바울은 이 소식을 빌립보로 전하고 선물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근황을 영적 자녀들인 빌립보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1:12-2:24). 또한 영적인 경고 및 권고를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3:2-16 유테주의자에 대한 경고, 3:17-4:1 반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 4:2 주안에서 하나 되도록, 2:1-11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2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해외복음사역을 위하여
3.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양무리를 바로 돌보는 열심을 주시도록
4. 사랑의 집, 복지마을, 선교훈련원건립을 위하여
5.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6. 북한과 중공의 복음화를 위하여
7. 교회학교 확장과 세계적 사명 감당을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1: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옥에 갇혀서, 인간의 가장쁜 자리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띄웁니다. 여기서 바울은 혼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제 관계의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말하며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한 모습과 겸허한 심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입장으로 편지를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표현했습니다. 종이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주인에게 모든 일을 봉사해야 되며 몸도 마음도 자기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직하고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는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빌립보 성도뿐 아니라 감독과 집사에게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감독이란 지교회의 목사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닌 사도의 후예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미 구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약으로 제사장은 없고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사도의 후예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며 그밖에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하는 일은 장로와 집사들에게 맡기어졌다고 하는 장로제도와 집사제도, 감독제도가 AD65년 이전에 기록된 본 서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영어성경에 sai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요 개인적으로는 성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성도의 구실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기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할 우리가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김창인 원로 목사님과 이종윤 위임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2 (금)은혜와 평강

찬송 98, 성경 빌 1:2~7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2)

넘치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어떤 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롬 5:20) 또한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받을만한 그릇이 준비됐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국이 민족복음화를 하려면 사천오백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뜻은 좋은 것 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자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 앞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 일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 † 우리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 모두가 감격이고 찬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영력과 체력과 더하시사 양무리들을 바로 돌보게 하옵소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1:4)

감사의 대상 바울은 감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라고 부를 수 있는 허를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말과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며 우리의 험로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의 이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한 감사가 아닌 타인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13편 가운데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의 초반부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그 감사의 전부가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가 아니고 복음진리에 헌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방인들 간에 교제는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성결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성장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는 감사로 가득 차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생활을 하십니까.

기도 개인의 일이 잘될 때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에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양우리를 바로 돌보게 하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1:6)

성도의 견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선한 구제를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꼭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출발은 잘 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 꼬리가 어디 가있는지 뵈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놓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구원하려고 부르신 우리들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멀리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혹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같으나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터 이루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을 이루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기어코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 사탄이 제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인간들이 별소리를 다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도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제직과 직원들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1:11)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훌륭한 천국시민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가 되어 전도를 많이 하는, 이처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땅 위의 교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해질 때까지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 했습니까. 자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을 구하였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 있는 총명이 밀받침이 되는 사랑을 구하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의 면류관이며 그리스도인의 덕성의 총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겸한 풍성한 사랑이 모든 성도의 가슴과 생활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사랑의 물결이 강물처럼 넘실거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감이 되는 교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며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찰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며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 믿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듣든지 말든지 뿌리면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매 맺는 천국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충현교회가 전도의 불이 붙어 배가되게 하옵소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1:12)

고난 속의 행복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고난은 수없이 닥쳐 오고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때 그로서는 인간적으로 최대의 고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 안타까운 순간을 그런 아픔을 인간들로 하여금 그 뜻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고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보냈으니 그는 고난 속의 참 행복자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무언의 전도를 합니다. 많은 시위대장들이 그의 소망에 넘친 얼굴을 보며,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며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전도를 하는 줄 압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속에 참이 있고 진리가 있을 때에 그말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성경을 기록하는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옥중서신 전부가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환경을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감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곳을 성소로 만들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생의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성소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담대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담대한 바울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담대함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잡아주며 이끌어 주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 세상에서 하루 빨리 죽으면 천국의 날이 하루 길어질 것이고 하루 길게 살면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울같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충현교회 당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은혜가운데 질서있게 제반사를 처리하게 하옵소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1:18)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고전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에는 내적인 분열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은혜를 받아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빌 3:18-19) 또 그들 가운데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행악자들이 있었으니(빌 3:2-4) 그들은 위치만 점령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문제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아가 되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고난의 짐을 안지려고 하고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아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하나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인간적인 감정과 명예는 무시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명예나 생명보다 더 중요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속적인 것에 이끌려 주목적이 되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을 종종합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자신보다 더 소중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피땀 어린 역사, 순교의 피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온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짐을 지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46억의 예산이 초과달성되게 하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1:20)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실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망도 없고 실망도 없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않는 순간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어둠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약속과 놀라운 사랑과 엄위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구원을 받았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도 절망에서 부터웁니다. 절망한 사람은 곧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좇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사 49:23).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시지 않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것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있었습니다(딤후 1: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바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됨을 것이 없고 복음으로
는 휴전선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나의 당한 고난을 통하여 교회와 타인이 유익이 된다면
이 고난까지 감수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천국일꾼을 마음껏 양육하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1:21)

성도의 죽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데 아무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이 썩을 장막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근심과 질병의 곤고함 속에서 살아야 하며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아야 하니 성도의 죽음은 그 모든 것들로 부터 자유롭게 되며 또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요일 3:2). 성도가 죽음을 면대하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니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은 그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해지며 사랑도 온전해 집니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고(고전 13:12)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고 해도 이기적인 것이 섞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은 단순히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만 아니라 신랑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또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시 116:15)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고,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도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와주기를 고대하는 신자가 죽을 때에 아름다운 증거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죽음을 잘 죽게 해달라고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죽음의 문제에 생각을 안하기가 쉽지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1:23)

죽음을 희생 바울은 죽음이 악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간절히 소원하였으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죽음을 희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관하고는 전혀 다른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며 닮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음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맡겨진 일을 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보람있는 삶이 됩니다. 바울은 개인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의 규범을 결정했습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개인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얻는 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한 신자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항상 기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자기를 바라보고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전부가 죄악덩어리이고 더러운 것 뿐이니 기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생겨지는 기쁨입니다. 죽음이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죽기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요 죽음에 대한 바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충을 맞고 매를 맞아 죽는 순교는 아니라 해도 자기와 싸워서 자신의 소욕을 희생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산 순교자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을 가리켜 유익한 죽음, 순교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게 하시사 자신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1:27)

복음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은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내용과 의무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특권, 거기에서 생겨지는 사명, 이런 것들에 부합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생활은 소망이 없고 또 생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성도간에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용기있는 삶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성도의 용기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멸망의 빙거가 되며 또한 신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이 은혜가 아니고 믿음때문에 받는 고난도 큰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자기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밖으로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성도의 생활을 후회와 은둔의 생활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0절을 보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 지금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위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행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시사 회원배가와 사업번창을 주옵소서

찬송 278, 성경 빌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2:1)

연합의 네 가지 원리 한국의 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간에 경쟁 내지는 다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는 구경거리요 조롱거리며 하나님께는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지상 과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연합의 원리가 권면하는 일,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일등 네 가지로 나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를 권면하지 못한 자로서 그가 바로 교회의 분열자 입니다. 영육간에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연합이 가능한 것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교제란 성령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도 교제로서 연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인 긍휼과 자비가 없는 연합은 공허한 연합이며 잘못된 연합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성도가 피차간에 보여 주어야 할 자세입니다. 긍휼은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랑이며 자비는 약자를 대하는 동정심인데 이 사랑과 동정심을 보여주어야 거기에 또한 연합이 이루어 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홀리 세폴카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두 자기들의 예배 방법이 가장 옳으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은 자기들 교파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스스로 답을 높이며 서로 대결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교파간에, 교회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 피차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 인색하면 안됩니다.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이웃과 믿음의 형제에게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오늘 우리의 말 한 마디가 형제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센터와 복지마을, 사랑의 집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2:1)

성령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복음 안에서 상호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상호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나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삶을 누려야지 성령이 없이는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한 뜻을 갖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간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픈 일을 이야기하며 기도제목을 나누는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간에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급선무는 전도입니다. 우리 중에 짝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교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노라’(골 1:27)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과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성령 안에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위대한 교제를 우리의 삶깊은 곳에서 나타내십시오.

기도 충현교회는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한 뜻을 갖게 하옵소서 충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또한 이와 같게 하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2:2)

뜻을 합하여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주어 뜻을 합해야 합니다.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 작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지 작용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서로 다른 내 뜻과 내 뜻을 합쳐 조화를 이루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독처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뜻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연합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평안이 오고 가정이 평안을 얻게 되며 민족 사회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분열하면 사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갈라서기 시작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목표를 정확히 해서 권면과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의 사도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며 우주성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정신적인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해 세밀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형제들도 손을 잡고 함께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자세를 가질 때에 모든 교파의 연합이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회의 연합은 거룩의 산물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거룩으로 이끌어 가며 거룩성이 결여된 연합은 붕괴되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과 연합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의 거룩성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니 교회의 연합은 무엇보다도 거룩성이 요청됩니다.

기도 믿음의 형제와 한 마음을 품도록 하옵시고 뜻을 합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2:3)

다툼과 허영 빌립보 교회는 다른 모든 지상 교회처럼 문제를 많이 안고있는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받아야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개인적인 야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무엇보다 연합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일을 먼저 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툼과 허영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이의 전쟁도 그러하고 가정 사이의 다툼도 개인 간의 분쟁도 명예욕과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하여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진리이고 정통파이고 우리 교회만 천당 간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만 제일이라고 합니다만 꿈에라도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며 한지체입니다. 우리의 한 발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그 발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혹 다른 교회가 잘못 되어가면 그 형제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다시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날 심판을 당할 때에 명예욕과 술책과 시기와 다툼에 빠진 사람들, 허영에 취하여 하나님을 섬긴채 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느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다투는 일은 보기가 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것은 금물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완전히 축출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빙자하여 다투고 공의를 빙자하여 잘라내고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혈기를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 † 우리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교만이 자리잡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요 무서운 죄악이며 악덕입니다.

기도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은총을 더 하시사 사랑의 복음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2:4)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범죄하여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만큼 대접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인생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담은 헐게 되어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잘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앞서 갈 때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자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되기 위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겸손한 자는 자신이 겸손한 줄 몰라야 합니다. '보아라 나는 머리도 숙이고 다니니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은 벌써 교만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과시일 뿐입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겸손한지 아닌지는 모르나 항상 주님을 닮으려고, 항상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서 겸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은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겸손은 교회가 연합하는데 절대 조건입니다. 겸손함으로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하겠습니다.

↑↑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심정이 겸손입니다. 선생님 사모님 불러주면 큰 벼슬이나 한 줄 알고 재고 다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뿐이며 우리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게 하소서. 파라과이의 김재창, 안석렬 선교서님을 능력으로 사용하시어 원주민 선교도 활발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2:7)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마 11:29).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의 모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간에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이요 보여주셨던 겸손이요 실천해 주셨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했습니다(2:6).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를 의미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2:6이하).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은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더우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인간에게 절실한 구원의 종교요 진정한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겸손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이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 밖에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천박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같은 겸손을 가지지 못하므로 오늘날 교회의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성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장 무서운 약점 가운데 하나는 교황청을 만든 것으로 교황이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해야 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루터와 칼빈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칠레의 유재일 선교님의 건강을 지키시어 기독교 복음이 꽃을 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혀」(2:9)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높여주고 또 높혀 주셨습니다.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아지는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인격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의 입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습니다(11절) 온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공산주의자들도 서기 연대를 사용하며 불교에서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란 “여호와”(야웨)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이사야 45장 23절이 인용된 것으로 여호와(야웨)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구주되심을 선언한 것으로 그만이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말이 아니고 주(主)라고 하는 말이 가장 높임을 받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主)라고 한 것은 가장 높아지신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절대자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언제든지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주’라는 말은 로마서 14장 9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지상의 예수에게 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저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야웨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날로,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로 표현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고전 1:8, 고후 1:14)

기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결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어 자유주의를 물리치고 주의 복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2:12)

권면의 말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사람인 것 처럼 보여집니다만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도 잘 순종하여 모든 면에서 순종을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순종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겸손과 순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겸손을 더해야 되고 순종은 계속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피차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12절 초두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2:1~5와 1:27의 권면의 말씀이 2:12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6~11에서 겸손과 복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삼입하여 그러므로 너희도 다음과 같이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와 믿음으로 대하되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외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집니다.(행 9:31, 롬 3:18)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령으로 성결케 되는 과정 즉 거룩한 복종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시간에 오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생활을 부단히 계속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몸과 마음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까지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동행(Concurrence)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뜻이 아닌 '각각'의 뜻입니다.

기도 복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님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되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2:13)

성도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결심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한두번, 한두달 기도하다가 언제 그 기도를 시작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릴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이루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한두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기도해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해서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만 감으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 동안 소원이 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우리 속사람에 나타나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증거가 성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도는 외적으로 나타내어 하나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은 인간의 논리로 대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하는데 그 경외하는 태도를 라틴어로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2:15)

빛의 자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즐거움은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지위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들이 성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빛이 될 수 있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하는 교만한 자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표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겸손입니다. 자기집을 찾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본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되 절대 복종을 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시비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 대한 원망과 시비로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시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순복하되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내 뜻 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땅 위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원망이나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토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만을 원하십니다.

기도 죄는 우리가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서사모아에 박행렬 선교사님을 불러서서 의술과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2:15)

빛의 열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고 사람 앞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마 5:14). 그러므로 빛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흠잡을데 없는 순전한 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길을 바르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흠을 잡아도 그것은 흠이 안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흠이 되므로 세상의 악에 대항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바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꾸중을 듣지 않도록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드러나는 것은 흠과 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룩한 행위는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의 빛을 들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갈 때에 자랑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면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입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어 못견디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와야 합니다. 성도의 영광과 자랑은 심판날에 가려져야 참영광과 참자랑이 됩니다. 누가 진짜 신자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과 자랑감이 될런지는 마지막 심판날이 되어야 알 터이니 우리는 그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까지 해야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를 보고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의 생활은 흠투성이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팔라우의 김익경 선교사님을 붙드시사 하루속히 현지에 적응하게 하옵소서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2:17)

제물이 되기까지 세상의 일은 지나친 것이 부과되거나 요청이 될 때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고 주님을 닮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달리겠다 힘을 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라는 이 말씀의 대강을 집약하면 겸손과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도 같은 제물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희생과 봉사가 있는 교회로 드러났으며 고난도 받기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교회 위에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아무데나 쏟아부어 놓고 아무렇게나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의 희생과 바울의 희생은 오히려 기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기쁨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고 나를 향하여 봉사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관제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전도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관제'라는 말은 희생의 제물 위에 붓는 술을 말합니다. 제사를 완성시키는 순서입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을 희생의 제물 위에 바쳐지는 관제와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헌신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헌신하기를 즐거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옵소서. 보츠와나의 전미령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옵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4:7)

하나님이 주신대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해롭게 여겨질 때는 그것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책임과 의무, 모든 재산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 자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면 얻은 것과 책임을 공존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겨준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꾼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일꾼이 되기로 준비만 잘 한다면 예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땅 위에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도 여기에 자신이 성취한 몇가지 자랑과 육신적인 자랑을 합니다(5, 6절) 그러다가 7절 초두에 ‘그러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8절)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사람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니 이 지식 아래 얻을 것을 얻고 버릴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땅 위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될 수 있도록 쉬지말고 노력합시다.

기도 받은 바 능력을 땅에 묻는 게으른 종이 되지않게 하옵소서
세계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3:9)

객관적 의 사람이 제아무리 의를 행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의를 객관적인 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의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를 구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성, 거룩성, 순수성을 말해주므로 인간들은 도무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정당성을 말할 때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고 인침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내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했고 지금은 이렇게 충성합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은 의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 11:9)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되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이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지식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한 자들의 팔이 되고 눈이 되는 충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3:10)

죽으심을 본받아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어깨를 겨루는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었다고 하는 부활의 종교로서 독특하고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최대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그리스도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알려면 연구를 통해서 혹은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인격과 체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으며 그 지식은 단순히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를 받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신 권능 곧 하나님의 힘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 가능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대해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 복종이라는 댓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자신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으니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누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힘으로는 사망이 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며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3:12)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또한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동안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효과적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부르심,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 없이는 영적인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서도 사탄의 부하들 만큼도 금지를 못갖고 한숨이나 쉬고 산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기 백성을 복종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면 좃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을 하는 신앙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큰 희생이 없이는, 큰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주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으나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계속 쫓을 뿐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이루려고 노력합시다.

기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중공에 신학교가 하루 속히 건립되게 하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뿔아 가노라」(3:14)

부름의 상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망각이라는 것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자의 특징은 옛일을 지극히 세밀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에서든 정신 건강에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을 망각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했던 과거의 일들만 자랑하면서 씹고 또 씹는 것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하므로 옛것만을 기억하고 의기소침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간증만 하고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일이 방해가 될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뿔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모든 과거는 미래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미래는 과거에 의하여 제약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뿔대가 있습니다. 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뿔대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 과거에 얽매어 밝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찬란했던 시절에 연연하여 무한한 미래의 시간들을 쪼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위하여 과거의 일들에 연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파키스탄에 파송된 의료선교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만나 · 1990년 2월호 · 등록번호 / 제9-110호(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서울특별시 강남
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4181-3)